

남도미술 100년 그 뿌리를 찾아서

‘광주·전남 미술 100년사’ 6월 발간

허백련·김홍식·오지호 등 20여명 삶·작품 수록

7월부터, 1958년부터 현재까지 2차분 작업 돌입



허백련



김홍식



오지호



김환기

광주전남 미술인들이 ‘뿌리찾기 사업’으로 호남 미술사를 개척했던 미술인들의 발자취와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광주전남 미술 100년사’를 오는 6월 발간한다.

호남 미술사를 학문적 차원에서 연구한 사례는 적지 않지만 지역 미술인들이 자체적으로 선배 미술인들의 삶과 지역 예술을 집대성하는 책을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미협(회장 정광주)은 8일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맞춰 호남미술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가칭 ‘광주전남 미술 100년사’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광주미협은 예향 광주전남 미술을 총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지역 예술의 뿌리와 실체를 조망하고 선배들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이 같은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에 발간되는 책은 호남 미술 100년을 정리하기 위한 1차 분으로 1910년을 전후로 1957년까지 활약했던 지역 미술인 20여명의 삶과 예술이 담길 예정이다.

광주미협은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말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사업비 8천만원을 지원받아 자료 확보, 수집 등 책자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당시 활약했던 작가들의 작품과 예술세계, 삶의 모습을 개인별, 활동시기 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지역 미술사를 조망할 계획이다.

이 책에는 남도 한국화의 기틀을 다진 의재 허백련 선생과 최초의 호남출신 서양화가였던 김홍식, 한국적 인상주의를 개척했던 오지호, 김환기 화백 등 주요 작가 20여명의 삶과 작품이 수록된다.

또 윤재우, 김인규, 백영수, 백홍기(이상 서양화)씨 등 광주 전남 지역에서 활동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가들의 삶과 작품들도 새롭게 조명된다.

남도 한국화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허백련, 허규, 허정두, 허건 선생 등 대표 작가의 주요 작품과 생애도 실린다.

광주미협은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하기 위해 전국 박물관, 미술관을 상대로 소장작품을 파악하는 한편, 작품, 저서, 평전, 미술평론 등 50여점의 서적과 관련 서류를 모았다.

또 작고 작가들의 생전 모습을 생생하게 되살리기 위해 유족, 제자, 지인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책자에 수록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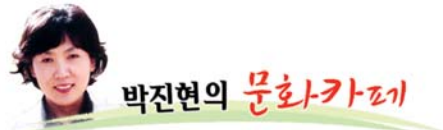
광주미협은 5월까지 자료수집 등 기초작

업을 마친 뒤 미술인들을 중심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 책자발간 작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어 7월부터는 1958년부터 현재까지 주요 작가들의 작품과 연대기를 총정리하는 2차분 ‘광주전남 미술 100년사’ 출간 작업에 들어간다.

정광주 광주미협회장은 “지역 미술인들이 뜻을 모아 지역 미술사를 정리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 책이 호남미술의 근원과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경기자 penfoot@kwangju.co.kr



천경자가 고흥을 떠난 까닭은

천재화가 이중섭(1916~1956)은 6·25 동란기인 1951년 삶과 예술의 자유를 찾아 제주도로 남하했다. 서귀포 칠십리의 물새소리를 들으며 가족들과 지냈던 1년은 길지 않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올해로 그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지났지만 서귀포 정방동에 가면 아직도 화가의 체취를 생생히 느낄 수 있다. 제주시가 지난 2002년 개관한 이중섭 미술관 덕분이다. 제주시에 생애 한 토막을 서귀포에서 보낸 고인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미술관을 세웠다. 이방인으로서 1년간 서귀포와 인연을 맺은 화가의 흔적을 간직한 미술관은 매년 전국에서 5만여 명이 찾는, 제주도의 대표적 문화명소가 됐다.

오는 5월 대전에는 고암 이응노(1904~1989) 화백의 유작을 모은 이응노 미술관이 문을 연다. 지난 2004년 고암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첫 삼을 뜬 이 미술관은 대전시가 부지와 건축비 등 57억 원을 대고, 유족 측이 작품을 기증한다는 조건으로 성사됐다.

사실 대전시는 이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 고암의 고향인 충남 홍성군, 서울시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야 했다. 이응노 미술관을 세계적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저해대로 삼고자 한 대전시는 유족 측을 상대로 끈질긴 구애를 펼친 끝에 유체에 성공했다.

오는 2010년에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관광단지 내에 또 하나의 미술관이 들어선다. 바로 ‘천경자 미술관’이다. 양주시가 천경자(82) 화백의 예술세계를 기리기 위해 부지와 건축비 80억 원을 부담하고 천 화백이 작품을 기증하기로 했다. 이곳과 ‘연고가 없는 천 화백이 양주시에 보금자리를 틀 게 된 데에는 고흥군의 퇴짜가 계기가 됐다. 지난해 6월 천 화백의 큰딸이 어머니의 고향인 고흥군에 미술관 건립을 타진했다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재빨리 양주시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양주시는 이 미술관이 건립되면 주변을 아트파크로 조성, 문화예술 중심지로 거듭난다는 복안이다.

‘천경자 미술관’을 둘러싼 고흥군의 사례는 새삼 지자체의 문화마인드를 되돌아보게 한다. 제주시와 대전, 양주시는 연고도 없는 대가들을 끌어 안아 지역의 문화명사로 가꾸는 데 반해 고흥군은 평소 고향에 자신의 미술관이 세워지기를 희망했던 천 화백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다. 물론 돈이 원수였지만.

문화 인프라는 한 도시의 이미지를 바꿀 뿐 아니라 유류형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자원이다. 다른 지자체들이 출항작가는 물론이거니와 연고도 없는 작가까지 문화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만약 우주센터가 들어서면 고흥군에 천경자 미술관이 건립된다면 관광객 유치를 더할 나위 없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덩그러니 놓여 있는 호박을 몰라본 고흥군의 소극적인 문화행정이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신명난 남도소리 상설무대

다스름예술단 초청 ‘春風’ 11일 광주문화회관

광주문화회관은 다스름예술단을 초청, 남도소리 상설무대를 갖는다. 1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춘풍’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의 1부에서는 이난초·김해진·윤진철·김동현씨 등이 출연, 남도민요, 육자배기, 개구리 타령, 관소리 적벽가·춘향가 등을 들려주며 다양한 전통춤을 선사한다.

2부는 원래의 심청전을 새롭게 각색한 단막극 ‘평과와 황칠이’(사진)를 무대에



올린다. 이순단·김성애·송재영·임화영씨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510-9253.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소프라노 김선희 독창회

12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소프라노 김선희(사진) 독창회가 12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김씨는 이번 공연에서 비발디의 ‘신부여나는 경멸하였네’ 오페라 ‘라돈네’ 중 ‘도레타의 꿈’ 등 아리아를 비롯, 한국가곡 ‘얼굴’ ‘그리운 마음’을 들려준다.

조선대 음악교육과 출신으로 이탈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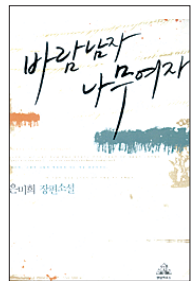


베르디 국립음악원 등에서 수학한 김씨는 슈베르트 국제콩쿠르에서 1등 없는 2등상을 수상했으며 이탈리아 로디 국제 콩쿠르 등에서 입상했다. 현재 호남신대 등에 출강중이며 벨칸토아카데미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피아노 반주는 이상복씨가 맡았으며 김도연, 오승석, 이현경, 강상수씨가 함께 무대를 빛낸다. 문의 011-629-6910.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소설가 은미희 새장편 ‘바람남자 나무여자’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인지...



“사랑은 대상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모범 답안이 있을 수 없죠.” 광주에서 활동 중인 소설가 은미희(47·사진)씨가 ‘18세, 첫경험’(이름) 이후 10개월 만에 장편소설 ‘바람남자 나무여자’(랜덤하우스)를 출간했다.

저자로서 처음으로 ‘사랑’을 전면에 내세운 ‘연애소설’이다. 총장로 한 커피숍에서 컸다는 작가의 말을 통해 은씨는 “힘들게 살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사랑을 위로하고, 힘들게 하는지,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인지 그려보고 싶었다”고 말한다.

주인공 우영은 의식산업체에 함께 근무하는 은수의 구애를 받지만,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고한 뒤 사진을 찍기 위해 어디론가 떠나버린 남자 동인의 존재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했다.

우영의 딱 닫힌 마음은 초등학교 3학년때 덩크트럭 기사와 눈이 맞아 가을



한 열매, 어렸을 때 우영을 성폭행한 엄마의 남자, 여자를 빼앗기고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장애인 아버지 등 주변인들을 통해 집착이 가능하다. 사랑을 주제로 삼은 것이 처음이지만 저자의 전작들과 맞닿아있는 것은 작품 속 주인공들의 이같은 지난한 삶 때문이다.

우영을 원하는 은수에게는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연상의 미혼모 서마담이 있다. 은수는 서마담과 동거에 가까운 생

활을 하며 번번이 육체적 관계를 갖지만 그것이 사랑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자신이 없다.’

서마담은 은수에게, 은수는 우영에게, 우영은 동인에게 러브콜을 보낸다. 하지만 저자는 누구에게도 사랑의 승리나 완성을 약속하지 않는다. 무엇 하나 딱 떨어지지 않는 이 사랑의 구도 역시 지닌다. 저자는 다만 “형태가 어떻든 저마담의 사랑은 소중하며,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뿐.

동인을 찾아내서려 했다 포기한 우영의 결정은 그래서 더욱 현실적으로 들린다. “바람은 바람으로 만나면 안 되는 것이었다. 한곳에 뿌리를 박은 나무라야만 바람과 놀 수 있었다. 바람에 가지를 내맡기고, 바람의 휘둘러 가지를 흔들며, 바람의 시샘에 나뭇잎을 떨구며, 그렇게 바람을 만나야 했다.”(271쪽)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대인동상일부동산

☎(대)223-1140, 5210 ☎011-602-2532 (영주은행 신보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설분과 엄의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LC타워(주)

☎(대)972-8004, ☎010-7154-6996

첨단지구 LC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일 유동인구 1만명 이상
★유명메이커 온집

- 각종 학원 임대 50~200평
- 병의원 임대 50~250평
- 라이브홀, 스카이라운지 120~230평
- 사무실 임대 27~400평

사업 동업자 구함

좋은 업종이 있어도 초기 자금(부담되는 임대료)때문에 망설이신다면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교환 환영

상가와 어떤 부동산 이든 교환 환영

- 중개업자 중개 환영 -

호성공인중개사

☎(대)521-6024 ☎011-602-4207 (용봉지구 하이마트교 옆)

대지매매(교회, 원·투룸부지)
·북구 양산지구 대지 1,000평, 500평 3면도로전 평당 135만
교회, 원·투룸부지, 유투창고, 사우나, 투자적합

물류창고, 공장부지
·광산구 수암동 자연녹지 1,300평 3면 도로전 대형창장 진입가능 매매 평당 95만원
·하남공단내 4차선도로변코너 대지 2,000평 건평 800평 평당 110만원 물류창고 허가됨

실버타운, 노인병원, 골프장 부지
·북구 일곡동 자연녹지 잡종지 7,500평 가격 상담후 결정

상가 및 사옥부지 매매
·운암동아파트 대단지 입구코너 대지 92평 평당 1,150만원
·신안동 6차선 대로변 610평 평당 260만원(사옥 및 물류창고 적합)

상가건물 매매
·광산구 운남동 대 390평 건 1,400평 지하 1, 지상 4층 4500세대 아파트 중심상가 24억 월 3,200만 매 56억

사우나 건물 매매
·서구 대지 400평 건평 1,200평 매매가 40억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구코너 최고요지 지하 1층 지상 5층 사우나 헬스 직영, 기타 1층 임대 보증금 1억 5천 월 1,200만원, 성황리 운영 중

매일밤 8시부터 쏠! 쏠! 쏠! 애들은가라!!

태진아

4월 12, 13일

정통 성인나이트 만을 고집하는

광주 상무 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